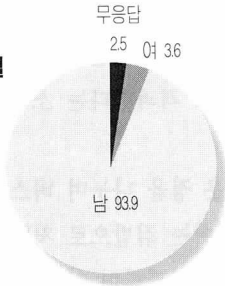


국립공원 이대로 좋은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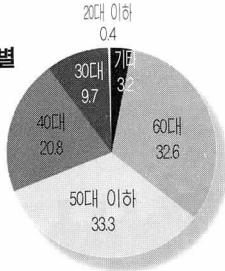
- ◎ 회원들 관심과 기대 높아 협회 활성화에 활력소
- ◎ 70%가 한해 5회 이상 탐방, 10회 이상도 45%
- ◎ 촬영, 자연자원 조사, 학습 등 특수 목적도
- ◎ 취사, 야영, 자연훼손 엄벌, 단호한 의지
- ◎ 개발위주정책 지양, 철저히 보존해야
- ◎ 공원직원교육 강화 전문가 채용토록, 명예 감시원제 실시 의견도
- ◎ 입산 예약제 부정적(41%)
- ◎ 입장료 비싸다. 500원이 적당. 정부재정지원 늘려야
- ◎ 현행 협회 명칭 괜찮다.(83%)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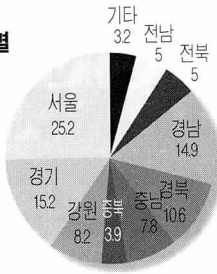
국립공원에 대한 우리 협회회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협회 활성화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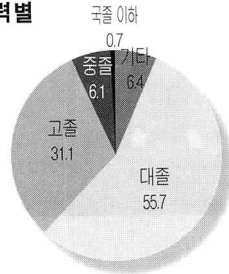


국립공원협회가 소식지인 NPAK News Letter 9월호를 통해 회원들의 국립공원 이용 실태와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회원 중 320명이 응답해 응답자의 약 42%가 한해에 10회 이상, 약 70%가 5회 이상 국립공원을 탐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약 60%가 등산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아 항상 산의 정상까지 등반한다고 답하여 회원들 대부분이 산을 사랑하며 산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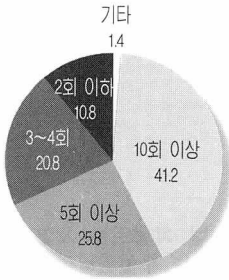
※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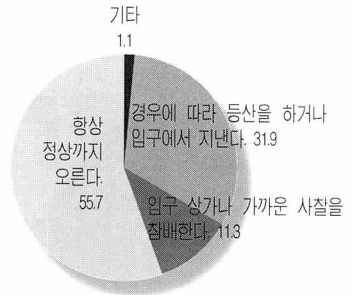
행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사진 촬영과 자연자원조사,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 찾는다고 답하는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국립공원을 찾는 회원들이 많았다.

또한 63%가 국립공원 내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야영금지에 대하여 현행대로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65%가 철저히 단속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립공원 내의 차량도로의 개설에 대해서도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이 84%에 달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을 지키는 일에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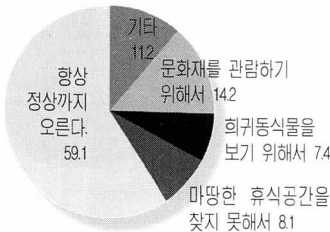
■ 지난 1년 동안 국립공원 탐방 횟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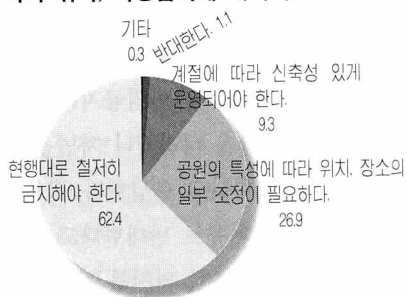
■ 국립공원에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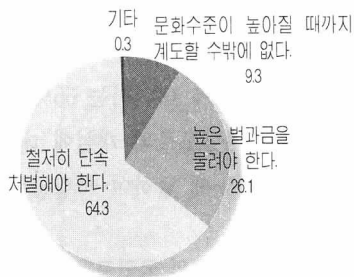
■ 국립공원을 찾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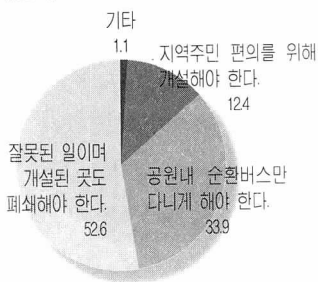
■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이외에
서의 취사, 야영금지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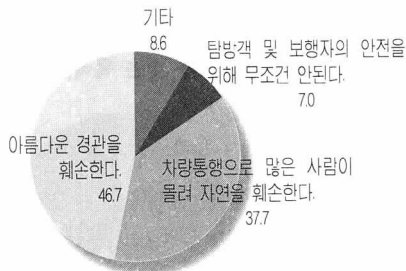
■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 국립공원 내 차량도로의
개설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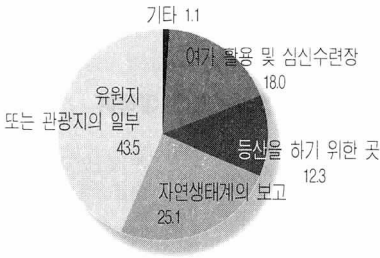


■ 국립공원 내 차량도로 개설
반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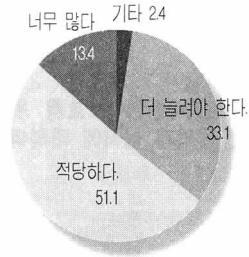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은 지난 날의 국립공원은 유원지 또는 관광지의 일부로서 생각한다 고 응답한 회원이 43%에 달했으며, 반면 자연생태계의 보고라고 응답한 회원이 25%에 달했다. 현재 지정된 20개의 국립공원 수에 대해서는 51%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33%는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 **지난날의 국립공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지정된 국립공원이 20개 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국립공원의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임도개설, 철계단 등의 시설물을 건설할 때에는 자연파괴를 고려해야 하며, 이미 개설되어 있는 매점 등 자연을 파괴하는 시설물은 철거하는 등 개발 위주의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와함께 ‘공원을 오염시키는 쓰레기투기 등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희귀식물 등의 공원유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visitor center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시설물과 문화유산, 등산로 등에 대한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여 입장객에 대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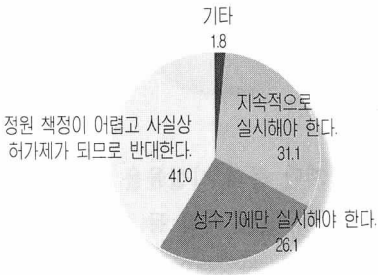
국립공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공단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거나 생물, 임학 등의 관련 분

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자원봉사제도를 실시해서 활용하거나, 협회 회원 등 관심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명예감시원제를 실시하는 등 관리 인원의 보강을 꾀하여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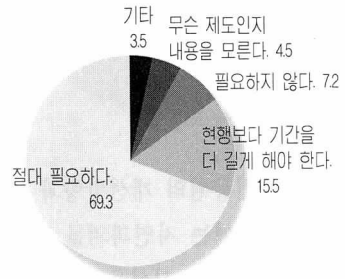
국립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시책에서는 입산예약제는 41%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연휴식년제에 대해서는 85%가 필요하거나 현행보다 기간을 길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에 대해서는 59%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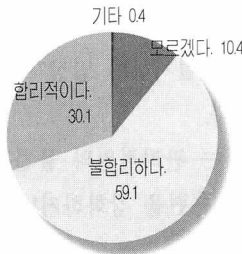
■ 등산로와 주변 보호를 위한 입산 예약제 실시에 대하여



■ 자연휴식년제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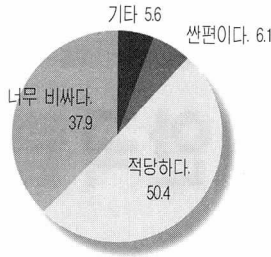


■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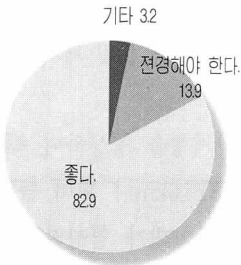
현재 입장료의 수준에 대해서는 38%는 너무 비싸다고 응답했고, 50%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500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0~1,000원을 꼽았다. 또한 관리공단의 설립시기에 입장료를 처음 수년간만 받는다고 공약한 대로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입장료 수익이 전용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비로 쓰여야 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현행 국립공원 입장료에 관한 의견은?**



국립공원협회의 명칭에 대해서는 83%가 좋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협회는 앞으로 관리공단과 공조체제로 자연환경보호 및 공원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71%로 가장 많았다.

■ **귀하가 생각하시는 (국립공원협회) 명칭은 어떻습니까?**



■ **국립공원협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 되길 원하십니까?**

